

**김필식 총장, 광주통일관장 취임**

김필식 동신대학교 총장(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회장)이 23일 통일부 산하 광주 통일관장으로 취임했다. 김 관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한 가운데 통일관련 정책을 다수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광주 통일관이 지역사회의 통일 전 시교육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통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동원 감독 오늘 인권다큐 강의**  
“한국다큐멘터리영화의 대부”라 불리는 김동원 감독이 24일 오후 7시 광주시청3층미디어센터에서 ‘카메라의 진실은 전진한다’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이야기한다. 김 감독은 한국다큐멘터리영화를 개척한 인물로 2009년 월간지 ‘스크린’ 선정 ‘80년대 이후 한국영화사를 빛낸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의 영상활동가 및 시청자들에게 진술하면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는 김 감독의 인권다큐멘터리 ‘종로, 겨울’도 상영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내일 광주문화관광포럼 조찬세미나**

김홍주 광주시관광협회장은 오는 25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호텔 4층에서 김동신 솔로몬 기업 연구소장을 초청해 ‘무한경쟁시대 생존전략’을 주제로 제3차 광주문화관광포럼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 송원고 총동문회 29일 문화예술축제. 송원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문성관·사진)는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전달식과 함께 송원고·광주에·백제예술대학 학생들의 공연과 황연수 명창, 가수 이용식씨, 송원고 풍문 등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주원 전 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장**

주원 전 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장(사진)은 2012년 여성세계박람회 KBS방송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여성 세계박람회 주관 방송사인 KBS는 세계적인 박람회 홍보를 위해 이번 2012년 여성세계박람회 KBS방송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내방**  
▲전준호(광주동부경찰서) ▲양인진(정보계장)

**송원고 총동문회 29일 문화예술축제**

송원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문성관·사진)는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전달식과 함께 송원고·광주에·백제예술대학 학생들의 공연과 황연수 명창, 가수 이용식씨, 송원고 풍문 등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주원 여수박람회 KBS방송센터장 임명**

주원 전 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장(사진)은 2012년 여성세계박람회 KBS방송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여성 세계박람회 주관 방송사인 KBS는 세계적인 박람회 홍보를 위해 이번 2012년 여성세계박람회 KBS방송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내방**  
▲전준호(광주동부경찰서) ▲양인진(정보계장)

**“북녘땅에 워낭소리 울리는 그날까지...”**

**통일 기원 국토횡단 나선 영암출신 재미교포 시인 정찬열씨**



‘통일기원’이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국토횡단 중인 영암출신의 재미교포 시인이 있다. 그는 작은 배낭 하나에 의지한 채 워낭을 흔들며 남북을 갈라 놓고 있는 한반도 허리를 따라 걷고 또 걷고 있다. 곁마다 북녘땅에 워낭소리를 울리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담겨있다.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날아온 정찬열(62)씨는 2년 전에도 통일을 기원하며 해남 땅끝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한 달에 걸처 한반도 남북을 종단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정씨는 “한반도 남북 국토종단을 마치고 그동안 북쪽 땅을 종단해 반도의 끝까지 가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 등으로 여의치 않게 돼 한반도 허리를 따라 걷는 국토횡단으로 대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을 거쳐 경기도로 넘어갔다. 그리고 연천, 포천, 파주, 임진각을 거쳐 지난 19일 서해바다에 이르렀다. 하지만 날씨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번 국토횡단의 종착지인 연평도와 백령도 입성 계획을 잠시 접고 지난 20일 고향 영암과 광주를 방문했다. 정씨의 손바닥 만한 수첩에는 보름 동안 휴전선 자락을 걸었던 그의 시선과 마음이 빼곡히 담겨 있다. 미국생활중에 만난 지인의 고향 철원에서 6·25 전쟁의 흔적을 발견했고,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는 ‘고향의 정’을 듬뿍 느꼈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소설가 이외우씨를 만나 3시간 동안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미국 동포사회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248km에 이르는 거리를 걸으며 통일에 대한 열원이 더욱 깊어졌고 국민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며 “비록 몸을 타지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고 정주영 회장이 교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 1984년 미국 땅을 밟았다. 그곳에서 남부한국학교를 설립해 주말마다 한글을 모르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말과 문화, 역사를 가르치며 교육자이자 시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오렌지 글사랑’이라는 문학 동호인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2년 전 국토종단의 기록들을 35차례에 걸쳐 미주한국일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국토종단 기록과 2년 전 종단 기록을 묶어 책을 펴낼 계획이다. 정씨는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녘땅을 밟은 것처럼 하루빨리 통일이 돼 워낭을 흔들며 북녘땅을 밟고 싶다”고 소망했다. 그는 24일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 연평도로 향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美 테렌스 맥릭 감독 ‘황금종려상’**



**‘트리 어브 라이프’**  
올해 칸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이 미국의 거장 테렌스 맥릭 감독의 품에 안겼다. 로버트 드니로가 이끄는 심사위원단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다르테 형제, 아키 카우리스마키, 페드로 알모도바르, 라스 폰 트리에, 누리 빌레 세일란 등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거장 감독들을 뒤로한 채 맥릭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수여했다. 1973년 ‘황무지’로 장편 데뷔한 맥릭은 과작(寡作) 감독으로 통한다. 약 40년간 5편을 만드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밤 한밤 공들여 찍는 감독으로 정평이 난 그의 작품들은 믿고봐도 무방한 명작으로 통한다. 모두 5편의 전작 가운데 2편이 세계 3대 영화제인

그는 1978년 리처드 기어 주연의 ‘천국의 나팔들’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미국 서부의 아름다운 풍광 아래 세 남녀의 기묘하고 아름답지만 비극으로 치닫는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그해 칸영화제는 맥릭 감독에게 감독상을 수여했다. 맥릭 감독은 1999년 ‘진데드 랜드’이라는 전쟁영화로 베를린영화제에서 최고상인 금곰상을 받았다. 철학교수인 맥릭의 영화는 명상적이고, 철학적이며 종교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올해 황금종려상을 받은 ‘트리 어브 라이프’도 무자관계를 이용해 우주의 기원과 섭리를 표현한 영화다. 심사위원장인 드니로는 “영화의 규모, 중요성, 의도, 당신이 그걸 무어라고 부르든 이 영화는 황금종려상에 적합한 영화”라며 맥릭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지도사 과정 종강**



광주교대(총장 박남기)는 21일 오후 광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지도사’ 육성사업 종강식을 가졌다.

**사이니 민호·여민지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여성가족부는 23일 청소년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축구선수 여민지와 그룹 사이니의 민호를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왼쪽부터 최민호,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여민지.

**남도 희귀우표 전시회**



희귀 우표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전남채신청(청장 김성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콘코스에서 ‘2011 남도우표문화제’를 개최한다. 1985년 광주학생회관에서 처음 개최

최대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남도우표문화제는 그동안 수많은 우취인과 청소년의 참여속에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2011 남도우표문화제’는 광주·전남에서 개최되는 우표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로, 광주·전남 일반 우취가 및 청소년들이 우표 작품 51개 작품 138점, 남민의 우표 작품 194작품 20점을 출품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가족 후 한마당’**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용)은 23일 직원 부모 500여명을 초청해 ‘기아가족 후(孝) 한마당’ 행사를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솟대와 카렌스를 혼류 생산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1공장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자녀들이 일하는 모습과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공장 견학 후 참석자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옮겨 열린 한마당 행사에서 국악 공연과 마술, 즉석 장기자랑, 초대 가수 공연 등을 관람했다. 김종용 광주공장장은 “오늘의 기아차 광주공장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도움을 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오는 31일 한차례 더 500여명의 직원 부모를 초청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오는 31일 한차례 더 500여명의 직원 부모를 초청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재광 제주도민회 창립... 양지역 공동발전 도모**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민회가 최근 광주·전남 거주 제주도민과 국내의 재외도민회 임원진, 각급 기관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지난달 임시총회를 가진 뒤 지난 21일 열린 창립식은 유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격려사, 세계자연유산 동영상 시청,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 및 결의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은 제주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제주특산물을 놓고 재치 퀴즈 맞추기, 즉석 노래자랑 등을 가졌다.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초대회장인 김석봉 광주대학교수는 “2년 전부터 친목모임을 가져왔으나 고향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자는 회원들의 제안에 도민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광주와 제주의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민회는 향후 광주지역 제주 도민 친목모임, 제주도 및 전라도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제향 특산물 전시회 등을 주최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백남술·김순자씨 장남 창법군 양승진(광주동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장)·박정국씨 장녀 혜영양=28일(토) 한국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예식실.  
▲정원배·박영아씨 동생 원강(청와대 근무)군 윤재영(보성부군수)·정윤섭씨 딸 은정양=28일(토) 오후 4시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양성철(기업은행 원호로지점장)·정민욱씨 장남 재준(공익법무관)군 법희승(아시아해학협력회의 의장)·신홍희씨 장녀 선유양(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8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 1층.  
▲최희(남도일보 주필)·최의정씨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광주시 태권도협회 2011년 2/4분기 정기모임 및 초청 강연회(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지도자의 자세)=27일(금) 오전 10시 영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소극장. 강사 김병조(개그맨·조선대 객원교수)  
▲(사)우리문화예술회 통통염서공모=폐선부지 현주동길공원의 사연과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모(선정되신분들에게 소정의 상품드림) 062-523-0474.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

- 부음**  
▲박말년씨 별세 이명학(개인택시)·명석(화원강사)·병철(잡지사)·혜숙(초등학교 교사)씨 모친상 천민교(교사)씨 방모상=발인 25일(수) 송정장례식장 2호실 062-941-7102.  
▲최익례씨 별세 김윤석(국토해양부 과장)·준석·옥희·현미·현진씨 모친상=발인 24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재임씨 별세 최기조(번호사 김도근법률사무소 사무국장)·미옥·유송씨 모친상=발인 24(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최문식씨 별세 강철·경철·형철·윤자씨 부친상=발인 24일(화) 송정 장례식장 3호실 062-941-7103.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 변귀남 님(여/93세)  
子/子婦 : 김영철(조교반, 영구/이순재, 영철/선영숙)  
女/婿 : 김일민/정순영  
孫 : 김민수·천수, 남수/정미  
호실:201호 • 발인:5월 25일  
장지:장흥 용산 • 연락처:227-4381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용규 님(남/78세)  
子/子婦 : 김필중/김희란, 석중  
女/婿 : 김영미/손재연, 경희/외병석  
발인:5월 25일 09시00분  
장지:담양 금성면 선영 • 연락처:250-4407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 양해숙 님(남/83세)  
子/子婦 : 양진홍/이은경, 진홍/김소현, 태홍/김소영  
女/婿 : 김희진/김성철  
발인:5월 24일 09시00분 • 장지:곡성 옥곡 선영하  
연락처:250-4412